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조짐 보인다

공론화위원회 100일 대장정 마무리…6대 정책권고안 전달
매립장 조속 확보 등 제안…허석 시장 "권고안 최대한 존중"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 이후 지역사회 현안으로 부각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가 적자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 이후 구성된 순천시 쓰레기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박상숙 순천대 교수)가 최근 10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쓰레기 문제 해결 정책권고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정책권고안은 쓰레기 발생에서 수집, 운반, 처리, 처분 전 과정에 대한 6대 정책을 담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9월7일부터 100일 동안 시민 대표 75명이 현장 조사, 정책토론 등 총 15차례의 숙의 과정을 통해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정책권고안'을 정리해 지난 17일 허석 순천시장에게 전달했다.

정책권고안은 ▲빠른 시간 내에 매립지 확보를 위한 행정적 절차 진행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양한 처리시설의 도입 검토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통합적 관리기구와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민관 협치 기구 설립 ▲거점관리수거방식의 도입 및 시범 운영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동일한 행정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이 담겼다.

허석 순천시장은 "찬성과 반대의 정책 결정이 아닌 쓰레기 정책 전반에 대한 공론화는 어려운 과정이었다"면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한층 발전된 자원순환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순천시청에서 박상숙 순천시 쓰레기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허석 시장에게 '쓰레기 문제 해결 정책권고안'을 전달했다. 〈순천시 제공〉

한편 순천시는 연말까지 공론화 추진 전 과정을 담은 시민참여 결과보고서를 발행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만국가정원의 겨울밤을 수놓을 '2018별빛축제'가 21일부터한국정원과 서문광장, 습지센터일원에서열린다.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빛의 향연 '라이트 가든'. 〈순천시 제공〉

순천만정원의 겨울밤, 별빛으로 물든다

'2018 별빛축제' 21일~2월 6일
미디어아트쇼 '나이트사파리'
산타마을 테마 '라이트가든'
놀이존·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

순천만국가정원의 겨울밤을 수놓을 '2018 별빛축제'가 21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한국정원과 서문광장, 습지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는 '정원에서 겨우내 놀자'를 주제로 가족·연인들이 겨울정원에서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진다.

야생의 세계를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나이트사파리', 신비하고 재밌는 '정원 속 동화나라 전시·공연·체험전', 가족뮤지컬 '팡쇼', '오즈의마법사', '우카탕카 코믹쇼', 별빛 아래 펼쳐지는 빛의 향연 '라이트 가든'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순천만습지센터 1-2층에 설치될 '정원 속 동화나라'는 대형 키즈카페를 연상할 만한 놀이터가 조성된다. 어린이 동화를 모티브로 한 정원 속 동화나라는 캐릭터 전시존(포토존), 아트·직업 체험존, 놀이존, 부모님들을 위한 북카페를 동화속 세계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직업체험은 과자집 만들기, 레이싱, 연예인 등 인기 있는 체험으로 진행되며 빛 축제인 만큼 빛을 이용한 블랙라이트, 동화 캐릭터 그리기 등 아트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별빛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한국정원을 배경으로 리얼한 야생의 세계를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나이트사파리'다.

빛과 정원의 대자연을 ICT 기술로 결합시킨 미디어아트쇼는 관람객에게 스펙타클하고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명당을 수호하는 'HERO'의 이야기로 구성된 6개의 존은 백두대간을 넘어 순천만에 등장한 HERO를 시작으로 정원의 최정상에서 표효하는 야생의 HERO로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 관람객을 위한 특별기획 공연도 선보인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는 22-25일에는 난타와 댄스, 아크로바틱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구성된 '팡쇼'가 진행된다.

29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는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협동심을 자극하는 관객 참여형 공연 '오즈를 찾아서' 가 열린다.

또 축제기간 중 주말·공휴일에는 마술, 마임, 슬랩스틱 코미디 등이 결합된 '우카탕카' 코믹쇼가 하루 2회 진행된다.

별빛축제 동안 순천만국가정원은 빛의 향연으로 물든다.

눈꽃, 크리스마스, 눈사람 등 상상 속 산타마을을 테마로 환상적인 빛의 세계로 초대할 라이트 가든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가족, 연인, 친구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꿈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겨울축제는 특히 가족단위의 관람객을 타깃으로 정원에서 즐길거리를 선사하고자 노력했다"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 가까운 정원에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내년부터 신청사 건립 본격화

공청회 열고 최종 의견 수렴
건립 규모 등 6월께 확정

순천시가 신청사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79년 건립한 순천시 청사는 1995년 승주읍과 순천시가 통합되면서 공간이 부족해 청사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다른 부지에 신청사 건립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시민 여론이 엇갈리면서 신축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인 2016년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 논의가 시작됐으며, 현 청사를 중심으로 인근 주택과 상가를 매입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약 1500억원이다.

예정대로 청사 건립이 진행되면 2024년 상반기 입주하게 된다.

순천시는 최근 시민과 청사 편입예정부지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마지막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순천시는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치를 확정하기로 했다.

건립 부지는 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내년 1월 초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건립 규모 등 기본계획은 6월께 확정하기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청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 모두 현 위치에 청사가 들어서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최적의 장소를 찾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들 '호응'

간편 납부·세금 교실 등 운영

순천시가 지방세 납세 편의 도모를 위해 추진한 다양한 시책들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 한해 시민의 편의와 재산권 등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카카오 알림톡 및 간편 납부 서비스',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고충과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찾아가는 세금 교실' 등 다양한 세무시책을 운영했다.

특히 이들 시책 중 카카오 알림톡 및 카카오페이 원클릭 간편 납부 시스템 구축은 지방세 납세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고 시는 평가했다.

시는 지난 9월 말부터 본격 운영한 카카오 알림톡은 시에서 카카오 앱을 통해 기존에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에 메시지를 발송하면 납세자는 공인인증절차 없이 생년월일 인증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형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시 행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7월부터 지방세 업무경력을 갖춘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 감사부서에 배치해 고충을 들어주고 세무 상담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ARS 간편납부 서비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달 말까지 30여건의 고충민원 처리와 현장, 방문 또는 전화로 1000 건여건의 세무상담을 하는 등 시민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내년부터 빠르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시민들이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종이고지서를 대신하는 '전자고지서'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고지비용(고지서, 우편비용) 절감과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읍면동 전자고지 신청 실적을 평가해 우수 읍·면·동을 시상할 계획이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kwangju.co.kr

'순천시청년정책협의체' 3기 예비위원 31일까지 모집

순천시는 청년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순천시청년정책협의체' 3기 예비위원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순천시청년정책협의체 '청년통'은 지난 2016년 11월7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순천형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부터 청년캠프 등을 통해 청년 간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확장하며 행정과의 거버넌스 파트너로서 활동해 왔다.

대상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고 만 19~39세의 청년이다.

신청은 순천시 홈페이지나 순천시청 청년정책팀(061-749-5608) 및 순천시 청년센터(061-753-4640)로 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매우 중요다"면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kwangju.co.kr